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서면 자문

중구 정동 새안문로(돈의문) ~ 중구 순화동 서소문로(소의문)

2017. 07. 27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서면 자문내용

성명:

정성훈

서명:



구분	내용	비고
주요 길안내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덕여중 후문에서 이화여고-농협 사잇길로 갈라지는 결절점에 ‘주요 길안내 지점’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라 안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창덕여중 후문부터는 출입통제가 시작되는 곳이니 안내가 필요함. - 출입통제로 인해 시간대가 맞지 않아 탐방객 중에 이화여고-농협 사잇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 길을 통해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안내와 환경 조성이 추가되었으면 함. 	실시설계용역 보고자료 p70
휠체어 등 보행약자 통행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지역 순성길 시작과 끝 지점의 길안내에 ‘휠체어 등 보행약자’의 탐방이 가능한 구간과 경로가 어디인지에 대한 종합적 안내가 필요해 보임. 추가적인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 ‘경로안내판’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 - 창덕여중, 이화여고 구내의 제한적 출입가능구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우회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회로나 주변의 보행환경 정보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음. 	실시설계용역 보고자료 p68
서소문로 보행로 신설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를 신설하여 보차구분을 하는 구간에서는, 보행로 최소폭(1.5M?)을 설정하되, 전체 도로폭이 큰 구간에서는 차로폭을 일정하게 하고 나머지는 보행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로폭이 일정한 것이, 차량들의 조심스런 서행을 훨씬 잘 유도할 수 있고, 순성길 (보행)탐방로 신설의 의도를 사용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음. - 보행로, 차로의 경계선은 색상, 재질이 잘 대비되도록 하여 위험 표시,안내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edge warning) 	보행로 조성구간 도면 14, 15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서면 자문내용

성명:

이상곤

서명:



구분	내용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성길 시·종점 부분에 촉지도 및 음성안내시설은 설치하고, 핸디캡의 정도에 따라 순성길 탐방로접근로의 상황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구간의 경사도” 나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구간” 등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장애물구간 (나무, 탐방로 좁은폭, 주변의 위험시설 등) 은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는 안내나 설계 자체에서 보행의 안전을 미리 고려해야만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동판은 1차적으로 “점”적인 연결수준이고, 순차적으로 “선”적인 확장을 고려한다면 바닥동판도 완성탐방로/우회탐방로/미연결탐방로 성격을 구분하여 디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덕여중운동장 측면 구간은 주변부 레벨차를 고려하여 안전난간의 설치를 고려해야 하며, 신설구간 바닥마감과 기존구간 바닥마감은 순차적으로 통일하고 특히 보행로 주변부와 보행로 가장자리의 바닥마감을 다르게 처리하여 장기적으로 점자블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시 미 반영사항 발생시 극복방안이나 순차적 적용을 위한 대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외부계단이나 경사로 구간은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서면 자문내용

성명:

성기창

서명:



구분	내용	비고
보행영역과 장애물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서 안전한 보행영역과 장애물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분의 원칙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방식, 색상, 재질, 재료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영역 내 존치하는 보행장애물 관련 (기존 전신주, 빗물받이, 수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에서 언급한 보행영역과 장애물영역의 분리가 기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보행장애물을 존치할 경우, 보행장애물을 시각장애인 등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40cm 폭으로 둘러싸서 바닥재의 이색이질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서면 자문내용

성명:

채철균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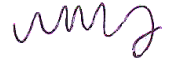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안전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난간의 경우, 이화여고 교내 보행로 등 기존 보행로 이용으로 인하여 좌우측의 고저차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난간 설치를 계획함. 	
안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시설의 경우, 소의문터 등 안내시설 계획 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향후 모바일 앱 개발 시에 청각정보전달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안내도의 경우에 휠체어접근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표기와 함께 우회방안에 대한 설명 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바닥동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동판의 경우, 필수적인 부분에 만 설치하며, 진행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계획함으로써 보행자가 이동현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보행장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행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행장애물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 보행자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이색, 이질의 바닥재, 충돌완충재 등을 계획함과 동시에 향후 방문객의 증가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이동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서면 자문내용

성명:

문하늬

서명:



구분	내용	비고
기존 성벽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벽이 지나간 자리임을 알 수 있도록 페인팅을 하는 구간에 색채 및 흔적 표시가 보행로 및 차량 이동에 혼선을 주지 않는 선에서 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행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 계획 시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동판 및 안내표시는 보행에 방해가 주지 않는 선에서 설치되어야 하며, 누구나(휠체어이용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 보행로 설치 시 점자블럭 및 보행유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사지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도가 높은 구간의 경우 전체 이동 경로에서 교통약자 및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경사인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형레벨 극복 시 계획되는 계단의 경우 계단참 및 높이가 교통약자에게 알맞은 수준인지 고려해야 하며, 난간 설치시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내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성길 및 돈의문터 안내사인의 경우 출발지점과 끝지점, 그리고 이용자가 이동하는 경로 위치에 따라 안내사인의 종류를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출발지점의 경우 돈의문 터에 대한 안내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동 경로 및 현재 위치, 주변 지역을 포함한 배치도 등이 포함된 통합 정보 사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 시 사인의 높이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가독성이 높아야 하며, 점자 및 음성 사인의 설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하는 경로에서는 각 위치에 알맞은 수준의 방향 및 식별 사인의 설치가 필요하며, 각 경로별 이용자들이 정확한 공간정보와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 경로가 사유지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 적절한 방향 제시와 사유지임을 밝히는 안내 사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강현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이용 지점을 표기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